

자조금소식



2007년도 양돈자조금 사업 115억원 조성

TV광고 소비홍보 비중 축소, 예비비는 대폭 확보
돼지고기 우수성 연구 적극 추진



2007년도 양돈자조금 사업규모가 모두 1백1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사업예산 및 운용도 대폭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는 지난 10월 10일 사무국 회의실에서 내년도 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마련을 위한 2차 회의를 열고, 내년에는 115억원 규모의 양돈자조금을 조성키로 하고 △농가거출금 52억원(45.2%) △정부보조 50억원(43.5%) △기타 조성금 10억원(8.7%) △이익잉여금 3억원(2.6%) 등 1백15억원에 이르는 세입·세출안을 마련했다.

이는 올해 사업규모인 1백6억4천만원 보다 8.9%가 늘어난 규모이다. 특히 농가거출금 목표(1천3백70만두×4백원×95%)가 올해 56억원(1천4백60만두×4백원×95%) 보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규모가 늘어난 것은 정부보조가 2억원(4.2%)이 늘어난 데다 양돈농가들은 물론 종돈·육가공·사료·동물약품업체 등 간접수혜자들의 기부금까지 새로운 자원(기타조성금)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 TV광고 사업비 축소 조정

이날 회의에서는 또 TV광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타사업 부분의 추진을 위해 올해 60여억원에서 25.4%가 줄어든 44억7천만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했다. 이는 그동안 대의원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TV광고도 중요하지만 TV광고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보다 다양한 소비홍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한미FTA 등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를 10% 이상 확보하되 중복사업의 축소 또는 통합을 통해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기본방침을 마련했다. 타기관이나 기존 조직의 활용이 가능한 사업은 자조금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 수입 돼지고기의 둔갑 판매 방지

반면 한·미 FTA 등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는 10% 이상 확보하기로 해, 2006년도 대비 218.7%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입산 돼지고기의 국산 둔갑 판매를 막고 국산 돼지고기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 현장견학이나 학교급식 등 대량 소비자 확보, 유통감시, 돼지고기 우수성 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비중이 10% 이상으로 증가하고, 조사연구 사업 또한 크게 늘 전망이다.

- 세입부문에 각종 양돈인 기부금도 포함

한편 세입 부분에는 정부지원금 외 조성내역에 농가거출금 뿐만 아니라 종돈업체, 육가공업체, 사료업체, 동물약품업체 등 간접수혜자의 기부금과 각 지역별 시·도·군·구·시·읍·면·동 등 각종 행사를 위해 양돈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각종 기부금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예산안은 이번에 마련된 예산안은 관리위원회(11월8일)의 심의·의결을 거쳐 11월 24일 농협 안성연수원에서 개최될 예정인 대의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자조금법’ 제명 변경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명이 ‘축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는 지난 9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소비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거출금을 축산업자가 축산단체에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임의거출금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의무거출금으로 구분하고, 축산단체는 임의거출금과 의무거출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의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축산단체가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되,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의무거출금의 납부여부, 의무거출금의 금액, 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자조금 사업의 결산 및 계획의 승인으로 정했다.

자조금 대의원 권한 대폭 축소

양돈자조금 대의원들의 지속적인 자조금 대의원 권한 강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양돈자조금 대의원의 권한이 오히려 대폭 축소된다.

최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 자조금 대의원의 의결사항이 한정되는 등 대의원의 권한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굳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제16조 2항 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관리위원을 기존 ‘대의원 중에서 대의원회의가 위촉하는 자’에서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

서 심의·의결을 거쳐 지명된 자’로 일부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농해위전문위원 검토결과 이를 ‘대의원 중 축산단체가 추천하고 대의원회의가 지명하는 자’로 최종 수정의견을 마련하여 대의원의 권한이 축소될 전망이다.

또한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개정안에서는 ‘의무거출금의 납부여부, 의무거출금의 금액, 자조금 사업의 결산 및 계획의 승인, 그 밖에 축산단체의 자조금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등 4개항으로 정했으나, 수정의견에서 ‘그 밖에 축산단체의 자조금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마저도 삭제하여 3개항으로 대폭 한정시켰다.

그러나 이처럼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본회 통과만을 앞두고, 대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도 않은 채 자조금 납부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대의원들의 권한 제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여 대의원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명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또한 대의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축산단체가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하되,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내년도 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마련키로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는 지난 9월 22일 양돈자조금 사무국 회의실에서 사업계획 담당위원 및 위원장단, 축산단체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양돈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조금 사무국은 농가거출금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돼지도축두수를 올해 추정치인 1천3백

50만두 보다 11%가 늘어난 1천5백만두로 늘려 잡았다. 이를 토대로 두당 4백원씩 60억원의 농가거출금에 정부 보조금 50억원과 이월금등을 포함 모두 1백20억원에 달하는 세입(안)을 제시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그러나 정부 보조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인에는 공감하면서도 돼지고기질병피해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내년도 도축두수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하고 보수적인 농가거출금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건태 위원장은 “내년도에는 최소한 1백15억~1백16억원 정도를 조성할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종돈이나 수입육에 대한 거출금 징수 등 또다른 재원확보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양돈자조금 TV광고 통한 소비홍보 비중 낮아질 듯

내년도 양돈자조금 사업 중 TV 광고 등 소비홍보사업의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가 지난 9월 22일 개최한 '07년 양돈자조금 사업 계획 수립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대의원회 설문조사 결과를 내년도 양돈자조금 사업에 대폭 반영한다는 기본 방침에 입장을 같이했다.

이날 박치봉 위원(농협 축산지원부장)은 “이번 설문 결과는 그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TV광고에 치중하기 보다는 보다 다양한 소비홍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의중을 반영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동환 부위원장(양돈협회 부회장)도 “TV광고만이 전부일수 없다는 점을 그동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쟁력 강화 대책 요구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양돈협회가 독자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TV광고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내년도 소비홍보사업의 비중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한미 FTA체결에 대비한 예비비 운용과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조사 연구 및 교육과 정보제공 사업 비중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건태 위원장은 “양돈자조금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보수적 사업 전개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양돈자조금 사업에 대한 양돈농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더욱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조금 관리위원 선출과정 ‘합법’ 회신 법제처, 농림부 질의에 회신

자조금관리위원 위촉시 양 축산단체의 추천을 거치도록 한 자조금대의원회 운영규정이 축산물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자조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이는 양돈자조금 대의원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다.

법제처는 육계자조금 대의원회가 요청한 대의원 운영규정의 자조금법 위반여부 질의에 대해 자조금법 제9조에 의거 대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축산단체가 정하도록 하고 있고 따라서 대의원회는 축산단체와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축산단체의 하부기관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축산단체의 추천을 거쳐 관리위원이나 감사를 위촉하더라도 대의원회의 위촉권한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단체급식용 돼지고기 요리 30종 개발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는 숙명여대 한국음식연구원(원장 한영실)에 의뢰, 오는 12월까지 초·중·고등학교 단체급식을 위한 돼지고기 요리 30종을 개발하기로 했다. 개발된 요리법은 이후 책자로 제작해 전국의 학교급식 영양사에게 보급하고, 영양사를 대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해 홍보할 예정이다.

숙명여대 한국음식연구원은 KBS 인기프로그램인 ‘비타민’의 고정 출연자로 다양한 건강요리법을 소개해 인기를 얻고있는 한영실 교수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관이다. **양돈**